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재 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민정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수료)**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성된 조절초점이론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동기는 개인별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상초점 지향적인 대학생들과 예방초점 지향적인 대학생들에 따라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 6개의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수강한 49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총 309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관계에서 조절초점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상초점 지향적인 대학생들은 예방초점 지향적인 대학생들보다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론과 예방초점 지향적인 대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효능감, 창업의지, 조절초점, 향상초점, 예방초점

1. 서론

창업이 국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은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기회형창업을 강조하는 것과 맥락이 일치되는 창업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창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창업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시니어는 물론 청년들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창업을 하나의 진로로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 많은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에 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Park et al. 2011).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은 단연 청년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이다. 일부 상충되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이 청년들이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라고 입증되었다(Barbosa et al. 2007).

청년들이 창업을 진로로 선택하고, 그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창업효능감이 있다(Chen, et al. 1998). 초기 창업의지의 영향 요인으로 개인의 특질이나 성격

특성이 강조되면서(Krueger, et al. 2000), 심리적 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창업효능감은 창업분야에서 오랜 기간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졌다(Culbertson et al. 2010; Chen et al. 1998).

반면, 자기효능감처럼 자기조절이론 중 하나인 조절초점은 그동안 산업 및 조직 심리, 광고 및 소비자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것과 달리 창업분야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0년 초반 일부 소수의 연구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창업분야에서도 조절초점이론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창업과정에서 조절초점의 역할을 살펴보는 소수의 실증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다(McMullen & Shepherd, 2002). 조절초점과 창업 프로세스와의 관계(Brockner, et, al. 2004), 조절초점과 기회인식과의 관계(Tumasjan & Braun, 2012), 자기효능감, 조절초점, 창업의지의 관계(Pihie & Bagheri, 2013) 등 소수의 연구들이 조절초점과 창업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바 있다.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절초점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동기가 개인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향상초점(Promotion Focus)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상초점은 성장과 발전에, 예방초점은 안전과 의무에 초점을 두고 각각 부합하는 목표를 이루려는 개인의 동기이다(Higgins, 1997).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aypark123@empas.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수료, mjchoi1003@hanmail.net

· 투고일: 2016-02-15 · 수정일: 2016-04-16 · 게재확정일: 2016-04-19

자기효능감과 조절초점은 둘 다 자기조절이론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특히 이 둘의 정의를 비교해봤을 때, 창업효능감이 창업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면 (Chen, et al. 1998), 조절초점은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동기를 의미하므로(Higgins, 1997) 이 둘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서 중요한 영향변수라면 조절초점의 연관성 또한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즉, 창업의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해야 한다(Bryant,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창업분야에서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을 함께 고려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해외의 경우 2000년 초반부터 창업분야에서 조절초점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시작되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국내에서 조절초점은 마케팅이나 광고, 리더십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뿐 창업분야에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관계에서 조절초점을 추가하여 고려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틈을 채우고, 학문적 시사점은 물론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규명하고, 조절초점을 구성하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창업효능감, 창업의지, 조절초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III장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한 뒤 IV장에서 가설과 관련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V장 결론을 통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 또는 창업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이때 능력이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나에 대한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에서 적도만 적절히 응용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주로 활용된 임상의학 및 건강 분야를 거쳐 오늘날 조직과 경영, 창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Chen, et al. 1998).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일컬어져 왔으며(Krueger, et al. 2000), 창업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Chen, et al. 1998).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나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

에서 우수한 대응력을 발휘하고,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도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여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높은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Krueger & Brazeal, 1994). 특히 창업효능감은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대체될 수 있는 동일한 개념으로 입증되었는데(Boyd & Vozikis, 1994),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계획행동이론의 근거에 따라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Boyd & Vozikis(1994)는 창업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하며,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창업의지 및 행동에 있어서 창업효능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Zhao, et al.(2005)는 창업교육, 창업 경험,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창업효능감이 완전매개변수임을 밝히며, 창업자가 되기로 결심하거나 창업의지가 높은 대학생들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그들의 창업효능감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BarNir, et al.(2011)는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 역할을 입증하였는데,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변수이며, 롤모델 대신 창업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창업의지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Yoo(2013)는 심리적 특성인 위험감수성, 진취성, 내적 통제 소재 및 내재적 동기가 창업효능감의 선행변수임을 밝히며,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Chung & Kim(2015)은 창업효능감이 창업실패관련 요인보다 창업의지에 더 큰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며,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창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좀 더 능숙하게 대처하고,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역량 또한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창업교육을 꼽을 수 있다. 창업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과 지식을 갖추 수 있으며, 훗날 실질적인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Debackere & Veugelers, 2005). 이러한 이유로 창업과 창업교육은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 이슈이며, 이미 전 세계 많은 교육 기관들이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을 만큼 창업교육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Saeed et al. 2013). Saeed et al.(2013)은 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에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창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Learning by Doing)이다. 이러한 학습 방법에는 비즈니스 타당성 조사나 실제 사업계획서 작성, 케이스 스터디, 초청연사에 의한 특별 강연, 인턴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창업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정 전문분야의 네트워킹이나 롤모델 제시, 1:1 밀착 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학습방법들과 유사하게 Kraaijenbrink, et al.(2010)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지원을 크게 세 가지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첫째가 창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육지원 부분, 둘째가 창업 초기 과정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을 지원하는 컨셉개발지원 부분, 셋째가 창업 후반 단계에서 창업 기업에 제공되는 사업개발지원 부분이다. 이러한 세 가지 대학교육 측면에는 Saeed et al.(2013)이 말하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2.2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Linan & Chen, 2009)이며, 의지가 행동을 예측하는 최고의 변수라고 볼 때(Ajzen, 1991), 창업의지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일련의 창업과정에서 창업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의 변수이다(Krueger, et al. 2000).

창업의지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창업분야에서 대표적인 의지모델인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과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에 따르면 창업의지는 지각된 욕구, 기회에 대한 행동성향, 지각된 실현가능성의 영향을 받으며, 두 번째 모델에서 창업의지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두 모델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연구에 따르면 창업이벤트 모델의 지각된 욕구는 계획행동이론의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동일하며, 창업이벤트 모델의 지각된 실현가능성은 계획행동이론의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동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Krueger, et al. 2000).

초기 연구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주로 개인의 특질이나 성격 특성에 초점을 두었는데(Krueger, et al. 2000), 이러한 심리적 특성 요인들은 최근까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Hmieleski & Corbett, 2006; Krauss et al. 2005; Park et al. 2011). 심리적 특성 요인에는 내적 통제 소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자신감, 성취욕구, 모호성에 대한 인내, 혁신성 등을 포함한다(Ferreira et al. 2012; Yoon, 2004).

심리적 특성 요인 이외에도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Warneryd(1988)는 창업의지 결정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나이, 성별, 이전 창업 경험 및 경력, 롤모델의 영향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성격 특성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주성, 통제 소재, 위험감수성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맥락적 요인으로 교육과 환경을 포함한다. Lee et al.(2011)는 업무환경과 개인적 요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혁신지향성,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과 조직적 요인에 해당하는 혁신적인 환경, 기술적 우수성 인센티브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Yoon(2004)은 창업의지 결정요인으로 개인특성과 환경요인을 제시하였는데, 개인특성 요인으로는 경력지향성 중 사업지향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안전지향성은 한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기유능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요인에서 개인적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환경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사회적 환경요인인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2012)의 연구에서는 창업동기 요인 중에서 창업교육과 성취욕구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 & Yang(2014)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에서 개인역량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경력지향에서는 안전지향, 자율지향, 기술지향, 사업지향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창업환경 요인에서는 개인적 네트워크와 창업정책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창업교육은 창업의지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2.3 조절초점

조절초점이론은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접근 동기 또는 회피동기에 기반한다는 자기 통제에 관한 이론으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분된다(Higgins, 1997).

향상초점이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수행하는 동기이다. 향상초점의 사람들은 성취나 이상, 희망에 초점을 두고,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적극적이다. 반면, 예방초점이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는 동기이다.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책임, 안전, 의무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되도록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며 변화에 수동적이다(Higgins, 1997).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모두 각각의 추구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향상초점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상태를 바람직한 결과로, 예방초점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한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보고, 각각 최종 목적에 닿기 위한 전략이나 수단,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Higgins, 1998;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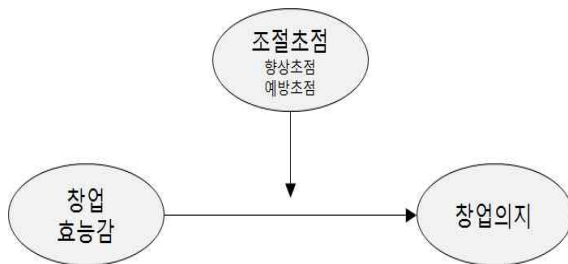
조절초점은 마케팅, 광고, 소비자 관련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창업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다(McMullen & Shepherd, 2002). 따라서 조절초점과 연계된 창업 분야의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McMullen & Shepherd(2002)의 연구는 조절초점을 창업 분야에 활용한 소수의 연구 중 하나이다. 그들은 조절초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특정 상황에서 이득이 강조되면 일반적으로 예방초점이 강한 사람들보다 향상초점이 강한 사람들의 창업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상초점이 강한 사람들이 이득에 더 예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손실이 강조되면 향상초점이 강한 사람들보다 예방초점이 강한 사람들의 창업의지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방초점이 강한 사람들이 손실에 더 예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식된 기회를 활용하였을 때보다 인식된 기회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손실이 크면 클수록 예방초점이 강한 사람들의 창업의지는 높아지는 것이다. Pihie & Bagheri(2013)는 조절초점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는데, 그들은 창업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조절초점을 고려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Pihie & Bagheri(2013)의 연구와 달리 향상과 예방초점을 구분하여 연구한 Bac & Lee(2015)는 향상초점과 창업의지를 정의의 관계로, 예방초점과 창업의지는 부의 관계로 설정하였는데, 향상초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예방초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관계에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성된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효능감은 독립변인으로, 창업의지는 종속변인으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성된 조절초점은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창업교육(Saeed et al. 2013)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Figure 1> 연구모형

구체적으로,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초점 가변수 및 가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Piecewise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창업의지} = & \beta_0 + \beta_1 \text{향상D} + \beta_2 \text{창업효능감} + \beta_3 \text{교육지원} \\ & + \beta_4 \text{컨설팅개발지원} + \beta_5 \text{사업개발지원} + \beta_6 \text{향상} \\ & \text{D} \times \text{효능감} + \epsilon \text{----- (식1)} \end{aligned}$$

- 창업의지 : 창업의지 측정항목들의 요인값
- 향상D(β_1) :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차이가 0보다 크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²⁾
- 창업효능감(β_2) : 창업효능감의 하위컨셉들의 각 평균값을 이용한 요인추출 값³⁾
- 대학창업교육지원($\beta_3 \sim \beta_5$) : 대학창업교육지원 항목들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추출 값. <표 5> 참고
- 향상D×효능감(β_6) : 향상D 와 창업효능감의 상호작용변수

본 연구에서 주요관심 변수는 향상D, 창업효능감, 향상D×효능감($\beta_1, \beta_2, \beta_6$)이다. β_1 이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면, 향상초점이 예방초점보다 강한 그룹의 창업의지가 평균적으로 더욱 강함을 나타낸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지원이 창업의지와 정(+)의 관계에 있다면 $\beta_3 \sim \beta_5$ 도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귀계수 β_2 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Krueger & Brazeal, 1994; Krueger, et, al, 2000). 마지막으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향상초점그룹(향상D)에서 더 크다면 β_6 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3.2 가설설정

3.2.1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많은 연구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창업의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주장하였다(Barbosa, et al. 2007; Boyd & Vozikis, 1994; Krueger & Brazeal, 1994; Zhao et al. 2005). Bandura et al.(2001)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되어질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되어진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열망, 목표, 결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창업효능감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행동이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McGee et al. 2009). Zhao et al.(2005)은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자가 되겠다는 결심이나 창업의지가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Lee et al.(2011)도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의 강력한 선행변수임을 입증하였다. Yang(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효능감, 창업의지, 조절초점

창업효능감은 오랫동안 창업가들의 동기와 성과, 그리고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Chen et al. 1998; Culbertson et al. 2010). 반면, 조절초점은 최근에서야 창업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McMullen & Shepherd, 2002). 창업효능감이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1) 편이상 개별관측치를 나타내는 하첨자를 생략하였다.

2) 조절초점 문항들을 varimax 회귀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으로 얻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요인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창업효능감의 하위 개념별 문항이 총 22개에 달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보다 이해하기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평균법을 이용하였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면(Chen et al. 1998), 조절초점은 주어진 과업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개인의 사고, 행동 등을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Higgins, 1997).

따라서 두 이론은 모두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을 설명한다는 유사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창업 분야에서 이 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McMullen & Shepherd, 2002; Tumasjan & Braun, 2012). 이러한 상황에서 Bryant(2007)의 연구는 그 둘의 관계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는 창업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을 함께 통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연구를 통해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은 모두 창업가의 휴리스틱(Heuristic: 합당한 이유에 따라 모든 기회를 고려하여 결정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 그리고 창업의지를 함께 살펴본 연구도 있는데, Pihie & Bagheri(2013)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입증하고, 학생들의 조절초점을 고려한 창업교육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향상초점이란 긍정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동기이고, 예방초점이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는 것에 초점을 둔 동기이다. 따라서 향상초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얻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창업을 위한 잠재 기회를 찾는 것에 적극적이지만 예방초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재기회를 찾는 활동에 더 조심스러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향상초점 지향적인 사람들이 예방초점 지향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Baron, 2002). 이와 마찬가지로 향상초점의 사람들과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교육을 통해 창업효능감이 높아진다면 하더라도 그 둘의 다른 성향에 따라 창업의지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상초점의 사람들은 성취에 초점을 두고, 위험을 무릅쓰거나 변화에 적극적인 반면에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안전에 초점을 두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며 변화에 수동적이므로(Higgins, 1997) 위험감수성, 성취욕구, 혁신성 등을 요구하는 창업에 대한 의지는(Ferreira et al. 2012; Yoon, 2004) 향상초점 지향적인 사람들이 예방초점 지향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조절초점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Gist(1987)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광범위할수록 명확도가 떨어질 것이며 척도가 구체적일수록 자기효능감의 예측도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창업효능감은 창업가들의 주된 역할과 과업에 기반하

여 총 22개의 문항으로 개발된 Chen et al.(1998)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다. Chen et al.(1998)은 창업효능감을 창업과정의 마케팅, 혁신, 경영, 위기관리, 재무관리에서 요구되는 여러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창업의지는 Linan & Chen(2009)의 연구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의지라고 정의하였으며, 그들이 사용한 창업의지에 관한 6개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조절초점은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접근동기 또는 회피동기에 기반한다는 자기조절에 관한 이론으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분된다. 향상초점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수행하는 동기로, 예방초점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는 동기로 정의하였다(Higgins, 1997; Lockwood et al. 2002).

통제변수로 사용된 대학의 창업교육지원은 Kraaijenbrink et al.(2010)의 연구에 따라 교육지원, 컨셉개발지원, 사업개발지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지원은 대학생들이 창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방식, 컨셉개발지원은 창업 초기 과정에서 대학생들에게 창업 인식 및 동기,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는 교육 방식, 사업개발지원은 창업 후반 단계에서 창업기업에 지원금 등의 목표지향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의 연구가 유럽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일부 문항을 추가하였는데, 컨셉개발지원에서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사업개발지원에서 '우리 대학은 구체화된 창업모델(제품, 서비스)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 대학은 창업모델(제품, 서비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한다'에 해당하는 총 3문항을 추가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을 위한 설문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구성은 <표 1>과 같이 설계하였다.

IV. 실증분석

4.1 표본 특성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6개의 대학에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북부지역 2개 대학, 중부지역 1개 대학, 남부지역 3개 대학이 포함되었다. 설문은 2015년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각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총 494명의 학생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불성실하게 응답되었다고 판단되는 표본 54개와 연구의 변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결측이 있는 표본 131개를 제외한 309개의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Table 1> 설문 구성

변수			문항 수	척도
상위영역	하위영역	선행연구		
일반 사항	연령, 성별, 학년, 단과대학, 학부 및 전공, 부모직업 및 경력, 가정의 월 평균 소득	-	8	명목 척도 등간 척도
대학창업 교육지원	교육지원, 컨설팅개발지원, 사업개발지원	Saeed et al. (2013)	16	등간 척도
창업 효능감	마케팅	Chen et al. (1998)	6	등간 척도
	혁신		4	
	경영		5	
	위기관리		4	
	재무관리		3	
조절 초점	항상초점	Higgins(1997)	9	등간 척도
	예방초점	Lockwood et al.(2002)	9	
창업 의지	-	Linan & Chen(2009)	6	등간 척도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은 결측 42명을 제외하고 남성이 146명, 여성이 121을 차지하여 전체 표본에서 성비가 동등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는 전체 표본의 약 86.7%가 19-25세로 가장 많으며, 학년에서는 대학 재학 중인(1학년~4학년) 학생이 약 97%,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대학원 과정 및 졸업생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년의 비율은 1학년이 다소 적고(6.1%), 4학년이 가장 많다(37.9%). 마지막으로 표본에서 가정의 월 소득 규모별 분포는 최소 구간인 100-200만원 표본을 제외하고 균등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특정 소득구간의 결과가 전체의 분석결과를 유도하는 위험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신뢰도 평가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내적 일관성이 유의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 기준 0.5를 초과하였고, 0.7 이상의 바람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Cronbach's alpha 값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변수는 교육지원(0.759)이며,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변수는 종속변수인 창업의지(0.943)로 나타났다.⁵⁾

<Table 2> 표본의 특성

특성	구분	N(309)	%
성별	남	146	47.2
	여	121	39.2
	결측	42	13.6
연령	19-25	268	86.7
	26-30	39	12.6
	기타	2	0.6
학년	1학년	19	6.1
	2학년	90	29.1

- 일반사항에서 학부 및 전공, 부모님 직업 등은 응답이 매우 다양하여 표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학부 및 전공은 경영학부(6.1%), 국제물류학과(5.8%), 글로벌서비스학부(3.9%), 미래창업학과(6.1%)를 제외하고 모두 응답자가 10명 이하로 특정 전공이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님의 직업도 대기업(6.8%), 중견기업(10.7%), 중소기업(15.9%), 자영업(12.9%)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 최초에 '교육지원' 변수는 6개의 항목이었으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문항을 제거하고 Cronbach's alpha 값 0.7 이상을 확보하였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	3학년	74	23.9
	4학년	117	37.9
	기타	8	2.5
	결측	1	0.3
	100-200만원	28	9.1
	200-300만원	58	18.8
가정의 월 평균 소득	300-400만원	61	19.7
	400-500만원	58	18.8
	500만원 이상	79	25.6
	결측	25	8.1

다음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되는 자기효능감 변수와 대학창업교육지원 변수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마케팅, 혁신, 경영관리, 위기관리, 재무관리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6개, 5개, 4개, 4개, 3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인을 Varimax 직교회전 방식에 의한 요인 분석 결과 KMO 표본 적합도가 0.92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도 근사 카이제곱(χ^2) 값이 4263.36(231)로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추출된 요인이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 개념별로 잘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이 0.5를 상회하여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Table 3> 신뢰성 검증 결과

변수	측정항목	Cronbach's alpha
창업의지	Y01-Y06	0.943
교육지원	X01-X04	0.759
컨설팅개발지원	X05-X09	0.895
사업개발지원	X10-X14	0.896
마케팅	X15-X20	0.913
혁신	X21-X24	0.840
경영관리	X25-X29	0.886
위기관리	X30-X33	0.822
재무관리	X34-X36	0.874
항상초점	X37-X45	0.823
예방초점	X46-X54	0.785

<Table 4> 자기효능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마케팅	혁신	경영관리	위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1	.783	.196	.166	.234	.191
마케팅2	.816	.266	.170	.194	.110
마케팅3	.783	.225	.206	.117	.158
마케팅4	.679	.241	.247	.185	.201
마케팅5	.598	.252	.191	.221	.269

마케팅6	.684	.149	.170	.336	.213
경영7	.212	.704	.201	.120	.192
경영8	.217	.728	.121	.208	.210
경영9	.207	.794	.229	.122	.198
경영10	.305	.718	.325	.186	.009
경영11	.273	.660	.404	.158	.075
위기12	.113	.265	.648	.146	.272
위기13	.171	.209	.791	.173	.107
위기14	.252	.230	.743	.188	.044
위기15	.238	.201	.713	.113	.038
혁신16	.170	.103	.126	.817	.108
혁신17	.215	.076	.207	.814	.119
혁신18	.406	.302	.106	.643	.017
혁신19	.243	.335	.218	.639	.081
재무20	.198	.198	.052	.133	.852
재무21	.197	.109	.119	.126	.844
재무22	.221	.150	.147	.015	.826
KMO 표본적합도: 0.92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chi^2(231)=4263.36$, $p=0.000$					

대학창업교육지원은 하위개념인 교육지원, 컨셉개발지원, 사업개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성 검증 기준을 만족시키는 각각 4개, 5개, 5개 항목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4개 항목에 대하여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인을 Varimax 직교회전 방식에 의하여 추출한 결과 KMO 표본 적합도가 0.91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도 근사 카이제곱(Approximate χ^2) 값이 2676.54(91)로 1%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개념과 요인이 명확하게 분류되었으며, 요인부하량도 0.5를 모두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적 수준의 집중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대학창업교육지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사업개발지원	컨셉개발지원	교육지원
사업화1	0.670	0.281	0.267
사업화2	0.795	0.312	0.136
사업화3	0.826	0.301	0.134
사업화4	0.817	0.243	0.249
사업화5	0.734	0.285	0.088
컨셉1	0.247	0.822	0.226
컨셉2	0.329	0.787	0.217
컨셉3	0.395	0.738	0.200
컨셉4	0.378	0.659	0.317
컨셉5	0.406	0.568	0.288
교육1	0.156	0.354	0.693
교육2	0.183	0.315	0.702
교육4	0.044	0.053	0.725
교육5	0.336	0.203	0.692
KMO 표본적합도: 0.91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chi^2(91)=2676.54$ $p=0.000$			

4.3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창업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와 예측과 동일하게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0.538)를 나타내었다. 대학창업교육지원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한 변수 중에서 일반적 창업 지식 및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지원 수준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컨셉개발지원, 사업개발지원은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각각 0.204, 0.233)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항상초점 그룹(항상D=1) 더미변수와 창업의지의 상관관계는 5%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0.158)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수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분산팽창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Table 6>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결과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교육지원	컨셉개발	사업개발
창업의지	1				
창업효능감	0.538**	1			
교육지원	0.041	-0.007	1		
컨셉개발	0.204**	0.260**	0.000	1	
사업개발	0.233**	0.248**	0.000	0.000	1
항상D	0.158*	0.278**	-0.081	-0.001	0.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의지 : 창업의지 측정항목들의 요인값 • 항상D : 항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차이가 0보다 크면 1, 아니면 0인 더미 변수 • 창업효능감 : 창업효능감의 하위컨셉들의 각 평균값을 이용한 요인추출 값 • 대학창업교육지원(교육, 컨셉, 사업) : 창업교육 항목들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추출 값 					
* p<.05, ** p<.01					

4.4 가설검증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초점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회귀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의 분산을 설명하는 능력(R²)은 약 30.5%이며, 모형의 적합도는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여 연구모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7>의 마지막 열에 제시된 VIF 값이 모두 2 미만으로 일반적 기준치인 10을 크게 하회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주요 관심변수 중 하나인 항상초점그룹 더미변수(항상D)의 회귀계수(β_1)는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효능감과 대학창업교육지원 수준이 동일하다면 조절초점에 따른 창업의지의 평균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항

상초점이 예방초점보다 강할 때 창업의지가 강하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관심변수로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창업효능감의 회귀계수(β_2)는 대학창업교육지원 수준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값($\beta_2: 0.422$)을 보여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즉, 가설1을 지지하여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조절초점에 따른 차별적 관계를 나타내는 β_6 (항상D×효능감)은 5%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0.129)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방초점보다 항상초점이 강하면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더욱 강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절초점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연구가설2를 강하게 지지한다.

대학창업교육지원 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에서는 교육지원을 제외하고 컨설팅개발지원과 사업개발지원이 각각 5%,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beta_4: 0.089, \beta_5: 0.109$) 선행연구에 따른 예측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Table 7> 다중회귀분석 결과

$\text{창업의지}_i = \beta_0 + \beta_1 \text{항상D}_i + \beta_2 \text{창업효능감}_i + \beta_3 \text{교육지원}_i + \beta_4 \text{컨설팅개발지원}_i + \beta_5 \text{사업개발지원}_i + \beta_6 \text{항상D}_i \times \text{효능감}_i + \epsilon$				
	coe.	t-value	p-value	VIF
(상수)	0.004	0.072	0.942	0
항상D	-0.039	-0.783	0.435	1.089
창업효능감	0.422	6.753***	0.000	1.731
교육지원	0.051	1.077	0.282	1.006
컨설팅개발	0.089	1.794*	0.074	1.093
사업개발	0.109	2.212**	0.028	1.076
항상D×효능감	0.129	2.144**	0.033	1.594
adj. R ²	0.305			
f-value	23.529***			
변수의 정의는 [표6]과 동일 함				
* p<.05, ** p<.01, *** p<.001				

V.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조절초점을 구성하는 항상초점과 예방초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총 49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54부와 연구의 변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에 결측이 있는 131부를 제외하고 총 309부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초점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상초점 지향적인 학생들일수록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예방초점 지향적인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확증하였다(Barbosa et al. 2007; Boyd & Vozikis, 1994; Krueger & Brazeal, 1994; Zhao et al.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간의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 제시가 가능하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창업효능감만 살펴되지 않고 조절초점까지 함께 고려함으로써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의 연관성을 입증하였다.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온 부분이지만 동일한 자기조절이론중 하나인 조절초점은 상대적으로 창업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연구되기 시작했다(McMullen & Shepherd, 2002). 창업효능감이 창업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 또는 자신감을 의미한다면(Chen et al. 1998), 조절초점은 그러한 창업과정에서 개인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동기를 의미하므로 이 둘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둘의 연관성을 연구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창업의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Bryant, 2007), 지금까지 이 둘을 함께 고려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조절초점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부족한 틈을 채우는데 일조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에는 실제적인 창업교육 제공과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Saeed et al.(2013)이 제시했던 바와 같이 창업교육에는 실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흔히 행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으로 알려진 교육방법론이 교육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창업효능감이 창업과정에서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Chen et al. 1998), 행동에 기반한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창업가들이 겪는 과업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1:1 컨설팅 서비스나 지원금 제도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고 동시에 과도한 행정적

서류 작업에 대한 요구를 줄이는 효율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향상초점이 강한 대학생들이 예방초점이 강한 대학생들보다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 고려된 창업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조절초점은 개인의 유년기에서부터 성장 환경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정형화되는 성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상황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조절초점과 상이한 초점이 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방초점 지향적인 사람일지라도 향상초점 지향적인 이득의 상황을 강조하면 일시적으로 향상초점이 더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뜻이다(Camacho, et, al. 2003; Forster, et, al. 2005; Higgins, 1989). 이러한 맥락에서 예방초점의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을 통해 잃을 수 있는 손실보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더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득에는 이상실현, 잠재적 수익, 성장욕구 반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Higgins, 1997; 1998). 또한 예방초점의 대학생들은 향상초점의 대학생들보다 좀 더 변화에 수동적이고 안전지향적이므로(Higgins, 1997) 이들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극단적인 변화나 위험감수성 등을 강조하기 보다는 변화에 대해 점진적인 적극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 갖는 역할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 중 일부는 창업교육을 받았음에도 명확한 진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대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진로는 설문을 한 시점 이후나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진로로써 선택한 창업의지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전국의 6개 대학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통제하고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만 살펴봄에 따라 좀 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심층적인 연구가 되지 못했다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하기 위해 표본을 전국에 있는 다수의 대학으로 확대하고, 연구의 대상도 실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조절초점을 연구함에 있어 창업교육은 물론 지원제도, 환경 특성,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좀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Bae, B. Y. & Lee, J. H.(2015). A Study on the Regulatory Focu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215-223.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Barbosa, S. D., Gerhardt, M. W. & Kickul, J. R.(2007). The Role of Cognitive Style and Risk Preferenc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udies*, 13(4), 86-104.

BarNir, A., Watson, W. E. & Hutchins, H. M.(2011).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2), 270-297.

Baron, R. A.(2002). OB and Entrepreneurship: The Reciprocal Benefits of Closer Conceptual Link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4, 225-269.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Brockner, J., Higgins, E. T. & Low, M. B.(2004). Regulatory Focus Theory and the Entrepreneurial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20), 203-220.

Bryant, P.(2007). Self-regulation and Decision Heuristics i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valuation and Exploitation, *Management Decision*, 45(40), 732-748.

Camacho, C. J., Higgins, E. T. & Luger, L.(2003). Moral Value Transfer from Regulatory Fit: What Feels Right is Right and What Feels Wrong is Wro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0), 498-510.

Culbertson, S. S., Smith, M. R. & Leiva, P. I.(2010). Enhancing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2), 115-129.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Chung, D. Y. & Kim, J. H.(2015). The Effect of Evaluation for Entrepreneurial Failure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9(5), 277-301.

Debackere, K. & Veugelers, R.(2005). The Role of Academic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s in Improving Industry Science Links, *Research Policy*, 34(3), 321-342.

Ferreira, J. J., Raposo, M. L., Gouveia Rodrigues, R., Dinis, A. & do Paço, A.(2012).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pproach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 Enterprise Development*, 19(3), 424-440.
- Forster, J., Liberman, N. & Higgins, E. T.(2005). Accessibility from Active and Fulfilled Go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3), 220-239.
- Gist, M. E.(1987).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3), 472-485.
- Higgins, E. T.(1989).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Self-Regulatory and Self-evaluative Processes: A Developmental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57(2), 407-444.
- _____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12), 1280-1300.
- _____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pp. 1-46), 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 _____ (2002). How Self-regulation Creates Distinct Values: The Case of Promotion and Prevention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2(3), 177-191.
- Hmieleski, K. & Corbett, C.(2006).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4(1), 45-63.
- Hong, J. P. & Yang, H. S.(2014).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1), 141-157.
- Kraaijenbrink, J., Groen, A. & Bos, G.(2010). What Do Students Think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 Given by Their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9(1), 110-125.
- Krauss, S. I., Frese, M., Friedrich, C. & Unger, J. M.(200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 Psychological Model of Success among Southern African Small Business Owner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4(3), 315-344.
-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ee, L., Wong, P. K., Der Foo, M., & Leung, A.(2011).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1), 124-136.
- Lina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Lockwood, P., Jordan, C. H. & Kunda, Z.(2002). Motivation by Positive or Negative Role Models: Regulatory Focus Determines Who Will Best Inspire 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854-864.
-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 McMullen, J. S. & Shepherd, D. A.(2002). Regulatory Focu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ction Bias in the 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Opportunitie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61-72.
- Park, J. W., An, S. K. & Yoon, I. C.(2011).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24(4), 2499-2520.
- Pihie, Z. A. L. & Bagheri, A.(2013).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regulation, *Vocations and Learning*, 6(3), 385-401.
- Saeed, S., Yousafzai, S. Y., Yani De Soriano, M. & Muffatto, M.(2013). The Role of Perceived University Support in the Formation of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1127-1145.
- Shapi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and K. 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pp. 72-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Tumasjan, A. & Braun, R.(2012). In the Eye of the Beholder: How Regulatory Focus and Self-efficacy Interact in Influencing Opportunity Recogni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6), 622-636.
- Warneryd, K. E.(1988). The Psychology of Innovative Entrepreneurship. In W. F. van Raaij, G. M. van Veldhoven and K-E. Warneryd(Eds.), *Handbook of Economic Psychology*(pp. 404-447), Dordrecht: Kluwer.
- Yang, J. H.(2014).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65-77.
- Yoo, B. H.(2013).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Motivation on the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0), 2669-2690.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10.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25(2), 1537-1557.
- Zhao, H., Seibert, S.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Park, Jae Whan*

Choi, Min 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urther, the paper aims to study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per regulatory focus theory, individuals have different goal attainment approaches and underlying motivations; this posits two distinct orientations: promotion focus and prevention focus. Consequently, we hypothesize that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regulatory focus, either promotion or prevention.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we select a random sample of 494 entrepreneurship students at six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The analysis includes a survey of 309 stud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student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intention to become entrepreneurs. Further, regulatory focu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pecifically,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greater in promotion-focused students than in prevention-focused students. Th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education methodology that enhances student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specializ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prevention-focused students.

Keyword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 Regulatory Focus Theory, Promotion Focus, Prevention Focus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jaypark123@empas.com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Chung-Ang University, mjchoi1003@hanmail.net